

나라 사랑과 평화의 가정교육

박 영 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장

평화란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삶의 조건’ 이어서 공기와 같이 충족되었을 때 그것의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 없어진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처럼 평화 없이는 삶과 생명은 유지되지 못한다. 그래서 평화의 위협 앞에 선 오늘의 세계의 전 인류는 최우선 과제로서 평화문제를 선택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한 교회지도자의 말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를 거부하고 사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변혁을 가져 오려는 노력이 없는 것이며 악의 세력에 비해 우리의 무력함을 구실로 머지 않아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재난이 온다고 해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는 그것이다.

세계 173개국의 교회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3월 첫 금요일에 지키고 있는 세계기도일의 금년도 주제도 75년도의 유엔여성의 해와, 금년도로 정해진 세계 청년의 해와 마찬가지로 평화문제를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기도와 실천을 통해 얻는 평화’로서 인도교회여성들이 준비한 것인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표지 그림이 눈에 뜨인다. 인도의 국화인 연꽃이 소재인데 그것은 고요한 물에서 자라며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린 긴 줄기는 태양과 대기를 향해 쪽 뻗어 올라오는 것이 연

꽃의 생리라고 한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잔잔한 물 밑에 있는 진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고통과 불의를 뜻하며 고요한 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하나 긴장과 괴로움과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나는 꽃은 자기 자신과 사회 속에 기도와 실천을 통해 평화를 성취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인도교회 여성들의 연꽃을 보는 오늘의 그들의 시각이 어머니를 포함한 우리 나라 교회여성들에게는 공교롭게도 3·1절과 겹쳐진 금년도의 “세계기도일”을 기해서 생겨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계적으로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평화문제 논의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우리가 입밖에 내놓을 수 있는 평화문제란 내면화되고 정신화시킨 것 뿐이었다. 그럼으로 해서 핵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제 1 세계의 평화운동도 제 3 세계의 생존권을 위한 정의운동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며 세계의 촉각이 모여 있는 우리 나라의 분단상황으로 인한 극심한 반평화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

66

생명을 잉태, 분만, 양육한 체험으로 생명의 귀중성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어머니들이 우선 과제로서 평화를 위한 가정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평화를 위한 일의 출발로서 현명한 선택이다.

99

리의 평화를 논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을 저당 잡힌 채 무지로 인한 무관심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남의 일같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으며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더우기 생명을 잉태, 분만, 양육한 체험으로 생명의 귀중성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어머니들이 이에 각성하여 그들의 우선과제로서 평화를 위한 가정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평화를 위한 일의 출발로서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

만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으나 평화교육은 아주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과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칠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과제로서는 나만이면 된다는 개인주의, 또는 민족간의 극도의 이기주의, 힘이 곧 진리라는 강자의 논리와, 소유가 인간의 존재이유가 되는 것과, 모든 것은 인간이 한다는 신(神) 부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수 있는 것은 교육자의 기본자세라고도 하는 '함께 산다'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가정이 곧 한 생명체의 첫 교육장이며 부모라는 교육자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단 평화교육이라고 할 때에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성취를 위한 의지의 정도가 문제될 뿐이다.

오늘날 세계의 반평화적인 현상을 알아보자. 첫째로 세계는 인류전멸을 의미하는 핵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더우기 한국 민족은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되고 세계대전의 발발위험이 높은 분단국이라는 특수상황에 놓여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핵전쟁의 위험마저 안고 있어 인류전멸 이전에 민족전멸의 가능성이 우리를 더욱 전율케 한다. 우리 나라의 핵무기 보유량은 군사기밀이라 알 수 없는 일이나 오늘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11번 이상을 완전 초토화하고도 남으리만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위력은 히로시

마에 투하된 폭탄의 160만배라고 하는데 세계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이 지날 때마다 자그만치 100만불을 지불하고 있다. 그 비율의 100만분의 일만 할애하면 매 분마다 굶어서 죽어가는 25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연간 군사비 3주간분을 전용한다면 안전한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물의 문제가 해결되며 수질이 나빠서 해마다 죽어가는 2천5백만명의 사람을 구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무기의 4분의 3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팔리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오늘의 평화와 가난의 해결은 동일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 나라가 막대한 국방비지출로 복지사회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운동하면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될법도 아닌 소리로 일축되기가 쉬웠

다.

지금 평화운동이 한창인 구라파에서도 의식의 변화가 생기기 이전에는 평화운동에 무관심했었다고 한다. 인제는 사람들이 힘의 우세를 통한 안보논리는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군비경쟁만 촉진한다는 것, 핵무기의 위력은 적군과 아군을 가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핵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인류파멸이라는 것, 그리고 전쟁은 계획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쟁방지는 전쟁준비를 막는 일이라는 것이다.

핵 위협에 관한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핵에너지의 문제이다. 우리에게도 핵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천사의 얼굴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의 국민이 추방한 원자력발전기가 우리 나라에 들어 올 때마다 그것이 설치되는 그곳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을 세계인을 의아해 한다. 만일의 경우 생기는 사고는 얼마 전의 인도 보팔시에서 수천명을 살상한 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대손손이 물려받아야 하고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잘못된 가치관에 의한 발전

문제로 야기되는 현상들이다. 일반이 번창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미 구약기자가 바벨탑 이야기(창세기 11:1~9)에서 비판하고 경고한 바 있는 기술문명이 바탕이 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공업화가 물고온 기계화는 우선 대량생산을 하였으며 그것은 소비를 미덕으로 이는 사회를 그리고 그 결과는 한계가 있는 자원을 바닥냈으며 자원을 고갈시킨 결과는 이 지구를 쓰레기로 뒤덮게 해서 드디어는 인간의 집인 생태계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소유가 가치기준인 소비사회는 경쟁을 하게 하여서 개인과 국가간의 다국적기업의 횡포로 나타나기도 하는 빈부와 권력의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세계는 긴장과 갈등으로 불안해지고 있다. 공업화의 또 하나의 결과인 분업화는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만들었으며 오늘에 와서는 인간이만 들어 놓은 기계에 의해 조정되고 밀려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가속화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인구폭발에 의해 촉진된다. 여기에 더해 편리한 것과 유익한 것을 구별하지 않은, 더 많이, 더 좋은, 더 빠른, 더 싼, 우리가 아닌, 나만의..... 등의 우리의 잘못된 생활태도와 여러 가지 이유의 인간차

별은 인간성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교란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것은 윤리성이 결여된 기계화의 산물을 팔아야만 하는 상업주의와 오늘날의 국력의 우열과 경제강국의 서열이 무기경쟁과 무기무역고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국주의 그리고 못배우고 가난하고 여자라고, 피부색이 검다는 등으로 차별하는 인간불평등주의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각성하지 못한 우리들 개개인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과제로서는 나만이면 된다는 개인주의 또는 민족간의 극도의 이기주의와, 힘이 곧 진리라는 강자의 논리와, 소유가 인간의 존재이유가 되는 것과, 모든 것은 인간이 한다는 신부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즉 모든 사물(피조물 전체)이 정상상태(제 있을 자리-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개하려는 평화교육은 행동교육이 되어야 한다

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개인측면의 교육으로서는 안다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과 전문기술을 인간화하는 일, 집단적으로는 자연보호교육, 성장의 한계교육 및 검소한 생활교육을 그리고 국가, 국제적 측면에서는 다국적기업과 자력경제, 반핵운동 교육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차대전 후에 어린이들에게 평화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무기장난감을 소각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렇게 한 독일의 어머니들은 히틀러 치하에서의 전쟁 중에는 손수 기독교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평화의 근본 정신을 지켜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가의 네 거리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를 알리는 탐과 같은 것을 세워,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표시대가 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자기의 빵을 나누어 먹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막대한 원조를 펴고 있는 “세계를 위한 빵”(Bread for the World)의 하는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에 더 이상의

독일에서는 2차대전 후에 어린이들에게 평화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무기장난감을 소각하는 의식을 가졌다. 그렇게 한 독일의 어머니들은 히틀러 치하에서의 전쟁 중에는 손수 기독교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평화의 근본정신을 지켜왔다.

새로운 핵무기배치는 물론 이미 설치된 핵무기제거와 원자력발전소 설치반대에 남녀노소가 총동원되는 평화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독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국 미국 등지에서도, 가깝게는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살면서 삶을 통해 실천해 보여야 한다고 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반평화현상이 범람하고 있다. 첫째로 TV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칼로 찢르고, 총으로 죽이고 하는 인간의 파괴본능과 지배욕만 조장하는 프로그램이 판을 치는가 하면 반공이라는 명목하에 적개심을 북돋우는 언어구사와 내 비위에 맞지 않으면 때려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은 학교교문에 계양된 현수막의 '때려잡

자 ○○○'나 길거리의 '초전 박살' 등의 표어가 그것이 아닌가. 전쟁은 강력한 군비와 완벽한 병력 그리고 적개심이 높은 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한다. 분단상황의 오늘의 한국교회가 진정한 화해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반공교육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교육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로 앞으로 태어날 후세도 쓸 권리가 있는 자연자원을 바닥을 내는 소비미덕풍조에 세뇌된 우리들의 낭비벽은 오늘날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날 열어본 아이들의 서랍속에서도 학교당국의 습득물처리에 관한 비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인간의 분수를 망각한 소비태도의 반영이다. 오늘의 경쟁사회가 몰고온 나 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는 진학의 좁은 문을 뚫게 하기 위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도 내자식만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한 부모의 무조건의
열성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가정교육
에서도 평화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한
몸으로서의 유기적인 관계인 네가 아
프면 나도 아픈 '더불어의 삶'의 관
계는 몸에 익힐 수 있는 기회는 주어
져 있지 않다. 인간은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살 때만이 인간일 수 있고 이
것은 평화교육과 더불어 가정에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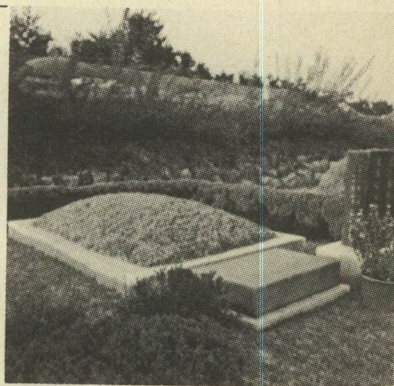
어머니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어머니는 생명이 전제된 평화
를 위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그
래서 오늘의 인류의 소망도 모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지 않는다. ① 7r

오늘의 상황에서는 자기를 깎아내
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것은 오늘의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으
로서 외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2r

◇ 葬儀物品一切取扱 ◇
靈柩車・公園墓地 相談
車輛晝夜待期(봉고12人乗)

代表 白 基 鳳 長老
全 義 雄 執事



임마누엘상조회

717・1625
324・5912

本相助會를 利用 하시는 聖徒님들께는 特別割引惠擇을 드립
니다. ◎ 老父母님을 모신 聖徒님들께 公園墓地 相談에
誠實하게 案内하여 드리겠습니다.